

부모-자녀 놀이에 대한 자녀의 인식과 행복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s of Play with Parents and Their Happiness

이승미¹ 김희진²

SeungMi Lee¹ HeeJin Kim²

ABSTRACT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parent-child pla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s of play with parents and children's happiness.

Methods: One hundred twenty 5-year-old children and their par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Each parent reported the current status of play with their child and the researchers interviewed the children about their perceptions of play with parents and their happiness.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parents played with their child for about 52 minutes on weekdays and 2-3 hours on weekends. Mothers played longer with their child than fathers on all days. Parents perceived that they played with their child at average frequency and showed above average participation. Children perceived that their parents were actively playing with them and children enjoyed and were satisfied with their play with parents. Children were happier when parents spent more time playing with them in an engaging fashion, and when they enjoyed the nature of the play.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implies the influence and importance of the quality of parent-child play on children's happiness.

* 본 논문은 2015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¹ 제1저자

LG 광화문 어린이집 원장

²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mail : heejin88@ewha.ac.kr)

key words play with parents, children's happiness, play with parents and their child's happiness

I. 서론

42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Diener & Oishi, 2000)에서 전체 응답자의 69%가 행복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택할 만큼 행복은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의식주, 교육, 여행, 가족과의 시간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한다(Carter, 2010). 유아기에 느끼는 행복감 같은 긍정적인 정서는 인생 전반에 걸쳐 건강, 학업, 직업, 친구, 결혼, 수입 등에 안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전미경, 장재숙, 2009; Seligman, 2011; Suh, Diener, & Fujita, 1996; 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Vailant, 2010).

유아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 부모와 교사에게 사랑받을 때, 가까운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때, 흥미 있는 놀이를 신나게 하고, 정서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학자들은 강조한다. 특히 유아는 놀면서 자발적으로 동기유발이 되고, 즐거움을 느끼고, 몰입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분출할 수 있는 기회(신은수, 김은정, 유명희, 박현경, 백경순, 2011)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또래와의 놀이 못지않게 부모와의 놀이도 유아의 성장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채종옥, 이경화, 김소양, 김연진, 2004; Bakeman & Brownlee, 1980; Liberman, 1977). 부모는 첫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상이고 신뢰하는 대상이고 의지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유아는 부모와의 놀이를 즐긴다. 부모가 자녀의 놀이에 참여하는 것과 발달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놀이 참여는 유아의 놀이를 정교화할 뿐 아니라(Labrell & Simeoni, 1992), 사회적 능력, 자기 조절능력, 감정 지능 등 유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영실, 부정민, 2009; 김경은, 2011; 심윤희, 2011; 이영석, 성영화, 2006; 최혜순, 김찬숙, 2011).

이렇듯 부모-자녀 놀이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시간이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 모두 자녀와 놀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부모가 놀이시간을 포함해 자녀와 공유하는 시간을 조사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놀이, 보호, 양육 시간을 모두 함께 조사한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김은화(2012)의 연구에서는 놀이, 보호, 양육을 모두 포함하여 아버지는 주당 20시간, 어머니는 주당 40시간을 자녀와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자녀간 놀이가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와 순수하게 놀아주는 시간, 놀이 빈도, 놀이 참여 수준 등이 어떤지와 같은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자녀, 어머니-자녀 놀이 패턴(예: 신체적 vs. 언어적; 일관적 vs. 예측 불가능 적)의 차이에 대한 연구(송은혜, 2008; 윤상인, 2011; 임형희, 2008; Pruett, 2000)는 과거부터 이루어져 온 반면, 자녀의 놀이 또는 자녀와의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부모가 놀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긍정적인 방식으로 놀아준다고 공통적으로 보고한다(김명순, 조향린, 박영림, 신혜영, 2013; 박순하, 2014; 이현지, 정혜옥, 2016). 이렇듯 특정 사안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은 행동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와 자주 놀아주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놀아주는지, 또는 누가 먼저 놀자고 하는지 등에 대한 부모의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동시에 부모-자녀 놀이에 대한 자녀의 인식을 직접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부모-자녀 놀이를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는 부모-자녀 놀이에 대해 부모가 보고(예: 원희영, 1997)하거나 연구자가 관찰(예: Damast, Tamis-LeMonda, & Bornstein, 1996)한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와의 놀이와 유아가 생각하는 부모와의 놀이는 다를 수 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생각하지만, 유아는 부모가 많이 놀아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유아의 인식에는 개별적인 성향도 반영되지만, 부모가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자녀가 그 시간을 부모와의 놀이시간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놀이를 지켜보고 놀이에 참여하고자 하더라도 핸드폰 게임을 하는

데 정신이 팔려있거나 다른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다면 유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못할 것이다. 개입적인 측면에서 부모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생각하고 자녀와 열심히 놀아주지만, 유아는 부모와의 놀이가 재미없다고 인식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녀의 성장과 부모-자녀 관계에 중요한 것은 유아가 부모가 자신의 놀이를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Carter, 2010). 따라서 부모-자녀의 놀이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행복한 경험을 조사한 정계숙, 최은아 그리고 강인설(2008)은 유아가 혼자 놀기보다는 또래나 교사 같은 타인과 함께 놀이하는 경험, 즉 관계적 경험을 통해 놀이할 때를 행복한 경험으로 보고하였다. 어머니와 자녀의 놀이 참여와 부모가 평정한 유아의 행복과의 관계를 밝힌 박영애와 김리진(2011)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과 활동 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행복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행복의 의미를 조사한 김성숙(2013)의 연구에서도 유아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재미있는 놀이에의 몰입과 같은 일상에서 느끼는 보람을 행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3~5세를 어린이들이 대상으로 행복을 연구한 홍용희, 김혜전, 전우용(2014)의 연구에서도 어린이들은 놀이할 때나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은 스스로 느끼는 행복을 평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아의 추상적 사고 능력의 한계 등을 이유로 부모나 교사 같은 성인이 유아의 행복감을 대신 평정한 연구(박성혜, 2017; 채혜경, 박리나, 2016)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행복은 주관적인 특성이 강한 개념(권석만, 2008; Seligman, 2011)이므로 비록 연구대상이 유아라 할지라도 유아 스스로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알아보는 중요하다. 최근 어린이에게 직접 묻거나(이현지, 정혜옥, 2016) 어린이가 그린 그림을 분석해서 어린이 관점에서 본 행복을 연구하는 시도(홍용희 등, 2014)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의 발달에 맞는 방법으로 행복에 대한 어린이의 관점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가 보고한 자녀와의 놀이 현황과 자녀가 인식한 부모와의 놀이를 살펴보고 자녀가 느끼는 행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부모가 지각하는 부모-자녀 놀이 현황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부모-자녀 놀이에 대한 자녀의 인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부모-자녀 놀이 현황과 자녀의 행복은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부모-자녀 놀이에 대한 자녀의 인식은 자녀의 행복과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5개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120명(남아와 여아 각 60명)과 그들의 부모 240명(아버지와 어머니 각 12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구분	
유아	
평균 월령	77.17개월(<i>SD</i> =3.89)
남녀 성비	1:1(각 60명)
부모(아버지)	
연령	
40세 미만	46명(38.3%)
40세 이상	74명(61.7%)
교육	
초대졸 이하	22명(18.3%)
대졸	69명(57.5%)
대학원 재학 이상	29명(24.2%)
근무 형태	
종일제	110명(91.7%)
시간제/무직	10명(8.3%)
부모(어머니)	
연령	
40세 미만	88명(73.3%)
40세 이상	32명(26.6%)
교육	
초대졸 이하	25명(20.9%)
대졸	73명(60.8%)
대학원 재학 이상	22명(18.3%)
근무 형태	
종일제	42명(35.0%)
시간제/무직	78명(65.0%)
가정전체	
월수입	
350만원 미만	16가구(13.3%)
3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9가구(24.2%)
5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40가구(33.3%)
750만원 이상	35가구(29.2%)

2. 연구 도구

부모-자녀 간 놀이 현황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응답한 설문을 통해, 부모와의 놀이와 행복감에 대한 유아의 인식은 연구자와의 면담을 통해 알아보았다.

1) 자녀와의 놀이 현황에 대한 부모 설문

부모-자녀 놀이 현황은 놀이 참여에 관한 문항과 자녀와의 놀이시간에 관한 문항으로 구분된다. 먼저, 부모의 놀이 참여는 3문항인데 첫째, 얼마나 자주 자녀와 놀이하는지를 ‘전혀 하지 않는다’, ‘아주 가끔 한다’, ‘종종 한다’ 그리고 ‘매우 자주 한다’로 이어지는 Likert식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둘째, 부모의 놀이 참여 정도는 이숙재(1984)의 놀이참여 정도에 따른 구분을 수정한 원희영(1997)의 척도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이 척도는 부모의 놀이참여 정도에 따라 1수준인 ‘무관심’에서 4수준인 ‘적극적 참여’까지로 Likert식 4점 척도로 답변하도록 제시된다. 1수준은 ‘무관심’으로 부모가 자녀의 놀이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2수준은 ‘바라보기’로 부모는 자녀의 놀이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자녀의 옆에 있으면서 자녀의 놀이 행동을 바라보고 살피는 경우에 해당된다. 3수준은 ‘소극적 참여’로 자녀의 곁에 있으면서 도움 요청이 있을 때 반응하는 정도로만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4수준은 ‘적극적 참여’로 자녀의 놀이에 부모는 놀이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놀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셋째, 놀이를 하자고 요청하는 사람은 부모-자녀 간 갈등에 대한 연구(김현주, 2015)에서 갈등을 시작하는 사람과 해결하는 사람을 기록하는 것을 참고로 하여 ‘주로 자녀’, ‘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 그리고 ‘거의 비슷’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자녀와의 놀이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놀이시간을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고, 각각 하루 평균 놀이시간을 직접 적도록 하였다. 부모가 생각하는 놀이와 연구자가 생각하는 놀이에 대한 견해를 좁히기 위하여 부모-자녀 놀이의 예를 제시하여 참고하게 하였다. 하위영역별 문항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부모-자녀 놀이 현황

문항	내용
부모의 놀이 참여 (3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와의 놀이 빈도(얼마나 자주) • 자녀 놀이에의 참여 수준(얼마나 적극적으로) • 놀이 시작을 요청하는 사람(부모 vs. 자녀)
자녀와의 놀이시간 (3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와의 평일 하루, 토요일, 일요일 놀이시간

2) 부모와의 놀이에 대한 유아의 인식

부모와의 놀이에 대한 인식은 연구자와 유아와의 1:1 면담을 통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놀아주는지(놀이 참여 수준), 놀이 시간이 충분한지(놀이 시간의 충분 정도), 얼마나 재미있는지(놀이에서의 재미),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놀이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유아의 인식을 4가지 측면에서 살펴 본 것은 부모의 놀이에 대한 인식(김명순 등, 2013; 박순하, 2014; 이현지, 정혜욱, 2016)이나 유아의 행복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관련 연구(김성숙, 2013; 홍용희 등, 2014)를 기초로 한 것이다. 첫째, 놀이 참여 수준은 부모용 질문과 동일하나 1수준(자녀 혼자 놀고 부모는 돌아 앉아 신문을 보는 그림)~4수준(자녀와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함께 웃으며 놀이하는 그림)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그림을 사용한 것은 유아가 생각이나 감정,

지각(인식)을 그림을 보고 쉽게 표현(Malchiodi, 2001)한다는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그림은 유아의 성과 부모의 성에 일치시켰다. 예를 들면 여아에게 아버지에 대해 질문할 때는 여아와 남자 성인이 등장하는 그림 자료를 제시하였고 어머니에 대해 질문할 때는 여아와 여자 성인이 등장하는 그림 자료를 제시하였다. 남아에게 엄마와의 놀이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예로 들면, “이 그림을 봐. 엄마와 놀이하는 모습이야. OO는 엄마와 놀 때 어느 그림과 비슷하니? 비슷한 그림을 골라보자.”라고 말한 후 참여의 정도가 다른 4장의 그림을 보여 주고 고르게 하였다. 유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의 핵심 내용을 추가로 설명(예: “여기 이 그림은 엄마가 핸드폰만하고 이 아이가 놀이하는 것을 보지도 않고 뭐라고 물어도 답도 잘 안하시는 그림이야.”)하였다. 남아에게 엄마와의 놀이에 대한 질문할 때 사용한 그림은 표 3에 제시되었다.

둘째, 구체물(킵)로 유아에게 정도를 이해하게 한 연구(Martin, Eisenbud, & Rose, 1995)에 근거하여 놀이시간이 충분한지, 얼마나 재미있는지, 만족스러운지는 유아에게 친숙한 블록을 이용하여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놀이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설명을 예로 들면 “여기 블록이 4개 있어. 네가 엄마 (또는 아빠)와 놀이하는 시간이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많이 쌓고, 아주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조금만 쌓는 거야. 너는 몇 개를 쌓고 싶어?”라고 질문하였다. 연구 대상 유아 모두가 블록을 쌓아서 정도를 표현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였다. 놀이시간의 충분 정도는 “엄마(또는 아빠)와 놀이하는 시간이 충분하니?”를 기본 질문으로 하고 유아의 이해 정도에 따라 추가 질문(예: “더 놀고 싶은데 그친 적은 없니? 놀이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니?”)을 사용하였다. 놀이에서의 재미에 대한 질문(“엄마/아빠와 놀이하는 것이 재미있니?”)은 그 자체로 모든 유아가 이해하였다. 놀이에 대한 만족도는 “엄마(또는 아빠)와의 놀이가 만족스럽니?”를 기본 질문으로 하고 유아의 이해 정도에 따라 추가 질문(예: “놀다가 짜증나거나 속상하기도 하니?”)을 사용하였다. 부모와의 놀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구체적인 문항은 표 3과 같다.

표 3. 부모와의 놀이에 대한 유아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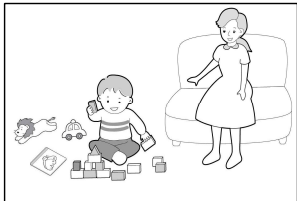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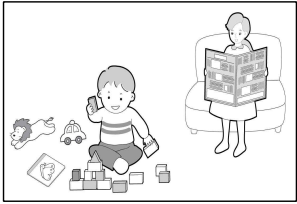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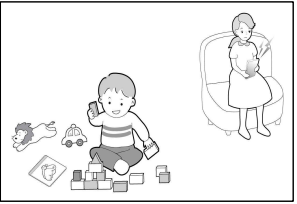
문항	내용
놀이 참여 수준	주관적으로 느끼는 놀이 참여 수준(얼마나 적극적으로)
<div data-bbox="528 1458 895 165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div> <p data-bbox="544 1693 788 1727">① 엄마가 함께 놀아줌</p>	<div data-bbox="1023 1458 1321 165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div> <p data-bbox="970 1671 1374 1756">② 엄마가 함께 놀아주지는 않지만 곁에서 가끔씩 필요할 때 도와주고 이야기 해줌</p>

표 3. 계속

문항	내용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③ 엄마가 다른 일을 하지만 가끔씩 놀이하는 것을 살핌</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④ 엄마가 다른 일을 하느라 놀이하는 것을 전혀 봐주지 않음</p> </div> </div>
놀이시간의 충분 정도	주관적으로 느끼는 아빠 또는 엄마와의 놀이시간의 충분 정도
놀이에서의 재미	주관적으로 느끼는 아빠와 또는 엄마와의 놀이의 재미
놀이에 대한 만족 정도	주관적으로 느끼는 아빠 또는 엄마와의 놀이의 만족 정도

3) 행복에 대한 유아의 인식

유아가 느끼는 행복은 Ivens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2007년 개발한 30문항의 The School Children's Happiness Inventory(SCHI)를 수정·보완하여 그 정도를 알아보았다. 번역과 수정은 연구자가 1차로 한 후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유아교육전문가가 검증하였다. 문항은 마음이 편한 상태를 묘사하는 문장(예: 유치원에 가는 것이 좋다. 기분이 좋다)으로 되어있는데 부모와의 놀이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블록을 1개에서 4개를 쌓아서 보여주고 1개인 블록을 선택했을 때는 1점, 4개가 쌓인 높은 블록을 선택했을 때는 4점을 배정해 행복한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Cronbach's α 로 측정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78이었다. 이 도구는 국내 연구(예: 이현지, 정혜옥, 2016)에서 사용된 적이 있고 Cronbach's α 로 측정된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76이었다.

3. 연구 절차

연구 절차를 예비 연구와 본 연구로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비 연구를 통해 부모용 설문지와 유아용 면담 자료를 본 연구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수정하였다. 만 5세 자녀를 둔 부모 5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 연구에서 세 가지를 수정하였다. 첫째, 부모가 자녀와의 놀이시간을 1시간 단위로 선택하게 하는 객관식 문항에 혼란(예: 1시간 20분일 경우 1시간과 2시간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함)을 느꼈기 때문에 시간을 직접 기입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 부모와 연구자가 생각하는 부모-자녀 간 놀이가 달랐기 때문에 부모가 놀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을 제외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 간 놀이에 대한 정의와 예를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예를 들면, 학습지를 함께 하는 시간, 텔레비전을 함께 보는 시간, 놀이터에서 노는 동안 봐주는 것은 놀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예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놀이 유형에 따라 참여 수준을 기록하는 것을 어려워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참여 수준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이 아닌 유아 8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연구를 통해 세 가지를 수정하였다. 첫째, 부모

와의 놀이와 행복감을 평정할 때 4단계 평정을 2단계씩 두 번으로 나눠 평정하게 하는 방법(예: 큰 원과 작은 원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한 후, 그 원의 크기를 중심으로 다시 큰 원 혹은 작은 원으로 다시 선택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유아가 더 혼란을 느껴 4개의 블록을 1개~4개까지 쌓아 평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연구대상이 만 5세 유아였고 간단한 문항(예: 기분이 좋다)이기 때문에 30문항에 응답하는 것의 어려움은 없었다. 둘째, 유아의 성에 따라 그림 자료를 분리하지 않고 유아의 성을 불분명하게 그린 후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놀이 장면만 구분하였으나 유아가 그림 속 유아의 성별에 대해 질문(예: 이 아이 나랑 같은 여자예요?)하여 유아의 성별에 따라 분리된 그림 자료를 준비하였다. 셋째, 행복에 관한 문항 중 3개 문항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유아가 이해하는 단어(예: 신경질적이다 → 짜증을 잘 낸다)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는 5개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 170쌍에게 학급 담임 교사를 통해 설문지를 배부한 후 151부를 회수(88.8%)하였다. 그중 부모 모두 충실히 작성한 120부를 추리고 해당 부모의 자녀를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활용해 별도의 장소에서 1:1로 면담하였다. 부모용 설문지는 10분 내외, 유아와의 면담은 15분 내외였는데, 4개의 질문을 하는 부모와의 놀이에 대한 인식은 2~3분 이내로, “힘이 넘친다.”, “울고 싶다.” 같은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 30개의 행복에 대한 인식은 12~13분 내외로 소요되었다.

Ⅲ. 결과 및 해석

1. 부모-자녀 놀이 현황

아버지와 어머니 각자에게 자녀와의 놀이 참여와 놀이시간을 알아본 후, 부모 간의 차이를 t-test로 살펴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부모-자녀 놀이 현황

놀이 현황	평균(표준편차)			t
	부모	부	모	
놀이참여				
놀이빈도 ¹⁾	2.64(.40)	2.50(.51)	2.77(.45)	-4.68***
참여수준 ¹⁾	3.16(.38)	3.12(.49)	3.22(.41)	-1.27
놀이요청자 ²⁾	.51(.31)	.54(.38)	.47(.34)	NA
놀이시간 ³⁾				
평일 하루	52.20(40.23)	46.95(40.25)	57.45(44.29)	-4.39***
토요일	148.65(115.19)	145.90(113.69)	151.40(118.70)	-1.95
일요일	162.65(121.05)	161.15(122.17)	164.15(120.36)	-2.23***

*** $p < .001$.

주1. 4점에 가까울수록 놀이 참여 빈도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주2. 요청자가 부모일 때 -1, 비슷할 때 0, 자녀일 때 1로 코딩; 1에 가까울수록 자녀가 요청한 것을 의미함; 양적 척도가 아니므로 t 검정 하지 않음.

주3. 단위: 분

4점 척도로 어느 정도 자주 놀아주는지 평가하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평균 2.64(표준편차 .40), 아버지는 평균 2.50(표준편차 .51), 어머니는 평균 2.77(표준편차 .45)로 모두 중간 정도 이상으로 자주 놀아준다고 응답하였다. 주관적 참여빈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 = -4.68, p < .001$)가 있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와 더 빈번하게 놀아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역시 4점 척도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놀아주는지 평가하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평균 3.16(표준편차 .38), 아버지는 평균 3.12(표준편차 .49), 어머니는 평균 3.22(표준편차 .41)로 모두 상당히 적극적으로 놀아준다고 응답했고 부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부모와 자녀 중 누가 놀자고 먼저 요청하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51(표준편차 .31), 아버지는 평균 .54(표준편차 .38), 어머니는 평균 .47(표준편차 .34)로 모두 자녀가 먼저 놀자고 요청한다고 응답하였고 부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부모와 자녀의 놀이시간은 평일은 하루 52.2분(표준편차 = 40.23),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148.65분(표준편차 = 115.19), 162.65분(표준편차 = 121.05)이었다. 즉, 부모는 자녀와 평일에는 평균 한 시간이 안 되게 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노는데 토요일보다 일요일에 더 오래 놀아주었다. 일요일과 토요일에 함께 놀이하는 시간이 긴 편이고 평일에 놀이하는 시간이 짧은 편인 경향은 아버지(일요일은 161.15시간, 토요일은 145.90시간, 평일은 46.95시간)와 어머니(일요일은 164.15시간, 토요일은 151.40시간, 평일은 57.45시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평일($t = -4.39, p < .001$)과 일요일($t = -2.23, p < .001$)에 어머니가 더 오래 놀아주었다.

2. 부모-자녀 놀이에 대한 유아의 인식

부모와 놀 때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놀이 참여 수준, 놀이 시간의 충분 정도, 놀이에서의 재미, 그리고 놀이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와 어머니와의 놀이에서 유아의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하였다(표 5).

표 5. 부모와의 놀이에 대한 유아의 인식

놀이에 대한 유아의 인식	평균(표준편차)			t
	부모	부	모	
놀이 참여 수준	2.38(.92)	2.54(1.23)	2.21(1.25)	2.06*
놀이시간의 충분정도	2.25(.79)	2.28(.99)	2.22(1.06)	.52
놀이에서의 재미	2.73(.87)	2.80(1.07)	2.66(1.02)	1.25
놀이에 대한 만족정도	2.43(.90)	2.48(1.01)	2.39(1.00)	1.00

* $p < .05$.

주. 4점 척도로 평정된 것임.

부모-자녀 놀이에서 놀이에 대한 유아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2점에서 3점 사이로 중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아는 아버지(평균 2.54, 표준편차 1.23)와 어머니(평균 2.21, 표준편차 1.25)가 자녀의 놀이를 옆에서 바라보는 2수준과 자녀가 요청하면 그 순간 놀아주는 3수준 사이 정도의 참여를 한다고 생각했다. 유아가 느끼는 부모의 놀이 참여 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 = 2.05, p < .05$)가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적극적으로 놀아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부모와의 놀이가 충분히 긴지에 대한 유아의 인식은 아버지(평균 2.28, 표준편차 .99)와 어머니(평균 2.22, 표준편차 1.06)에 대해 중간보다 약간 더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유아가 인식하는 놀이 시간의 충분정도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부모와의 놀이에서의 재미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평균 2.80, 표준편차 1.07)와 어머니(평균 2.66, 표준편차 1.02)에 대해 중간보다 더 재미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유아가 인식하는 놀이에서의 재미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부모와의 놀이가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유아의 인식은 아버지(평균 2.48, 표준편차 1.01)와 어머니(평균 2.39, 표준편차 1.00)에 대해 중간보다 약간 더 만족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유아가 인식하는 놀이에서의 만족 정도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3. 부모-자녀 놀이 현황과 유아 행복

부모-자녀 놀이 현황과 유아의 행복 간의 관계를 Pearson의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표 6).

표 6. 부모-자녀 놀이 현황과 유아 행복의 관계

놀이 현황	유아의 행복
아버지	
놀이빈도	.21*
참여수준	.28*
평일 놀이시간	.30**
토요일 놀이시간	.33***
일요일 놀이시간	.30**
어머니	
놀이빈도	.14
참여수준	.18
평일 놀이시간	.29*
토요일 놀이시간	.32**
일요일 놀이시간	.29**

* $p < .05$, ** $p < .01$, *** $p < .001$.

주. 놀이를 요청하는 사람은 명명척도로 측정된 것이므로 제외

부모-자녀 놀이 현황과 자녀가 느끼는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정적인 상관성이 있었다. 아버지가 자녀와 자주 놀아주고($r = .21, p < .05$), 참여수준이 높을수록($r = .28, p < .05$) 자녀가 느끼는 행복감은 높았다. 아버지가 보고한 자녀와의 놀이시간이 평일($r = .30, p < .01$), 토요일($r = .33, p < .01$), 일요일($r = .30, p < .01$)에 길수록 자녀가 느끼는 행복감이 높았다.

어머니가 보고한 자녀와의 놀이빈도나 참여수준은 자녀가 느끼는 행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었다. 그러나 놀이시간은 정적 상관성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보고한 자녀와의 놀이시간이 평일($r = .29, p < .05$), 토요일($r = .32, p < .01$), 일요일($r = .29, p < .01$)에 길수록 자녀가 느끼는 행복감이 높았다.

4. 부모-자녀 놀이에 대한 유아의 인식과 유아 행복

아버지, 어머니와의 놀이에 대한 자녀의 인식과 자녀가 느끼는 행복 간의 관계를 Pearson의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표 7).

표 7. 부모와의 놀이에 대한 유아의 인식과 유아 행복의 관계

	유아의 인식	유아의 행복
아버지와의 놀이에 대한 인식		
놀이 참여 수준에 대한 인식		.34***
놀이시간의 충분정도에 대한 인식		-.02
놀이에서의 재미에 대한 인식		.31**
놀이에 대한 만족정도에 대한 인식		.11
어머니와의 놀이에 대한 인식		
놀이 참여 수준에 대한 인식		.18
놀이시간의 충분정도에 대한 인식		.38***
놀이에서의 재미에 대한 인식		.25**
놀이에 대한 만족정도에 대한 인식		.34***

** $p < .01$, *** $p < .001$.

먼저 아버지와의 놀이에 대한 자녀의 인식과 자녀가 느끼는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면 놀이 참여 수준에 대한 인식($r = .34, p < .001$)과 놀이에서의 재미에 대한 인식($r = .31, p < .01$)이 긍정적일수록 자녀가 느끼는 행복의 정도도 높았다. 어머니와의 놀이에 대한 자녀의 인식과 자녀가 느끼는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면 놀이시간의 충분 정도에 대한 인식($r = .38, p < .001$), 놀이에서의 재미에 대한 인식($r = .25, p < .01$), 놀이에서의 만족 정도에 대한 인식($r = .34, p < .001$)이 긍정적일수록 자녀가 느끼는 행복의 정도도 높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 문제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놀이 현황을 놀이 참여 측면에서 살펴보면 4점 척도로 어느 정도 자주 놀아주는지 평가하라고 했을 때, 부모 모두 2.5점 내외로 중간 보다 조금 더 자주 놀아주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이런 경향은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더 강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놀아주는지 평가하라고 했을 때는 부모 모두 3.1점 내외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놀아준다고 보고하였다. 놀이는 부모 모두 자녀가 요청해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의 결과는 부모의 인식에 기반하는데, 놀이 빈도보다 놀이의 참여 수준에 관한 항목에 높은 평정을 했다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이다. 박영애와 김리진(2012)의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놀이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지만 자녀가 놀 때는 함께 놀아주기 보다는 자신의 일을 하거나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의 놀이가 풍부해지고 확장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놀자고 요청하고, 노는 동안에도 놀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Ginsburg, 2007; Hughes, 2010).

놀이 시간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모는 평일은 1시간이 안되게, 주말은 2-3시간 정도 자녀와 놀이하고 있었고,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평일과 일요일에 더 오래 놀아주었다. 부모와 자녀의 놀이 시간을 평일과 주말로 나눠 연구한 원희영(1997)도 부모는 자녀와 평일에 많이 놀아주지 않으나 주말에는 2-3배 많은 시간 놀아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놀이하는 시간도 길다는 연구 결과(김은화, 2012; 박영애, 김리진, 2012)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 간 놀이 시간 차이가 10분 내외인 것은 아버지가 자녀와의 놀이에 적극 참여하는 현대의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김대우, 2017; 이윤진, 김아름, 임준범, 2016).

둘째, 놀이 참여 수준, 놀이시간의 충분 정도, 놀이에서의 재미, 만족 정도 같은 자녀의 인식은 4점 척도에서 2.5점 내외로 대체로 긍정적이었는데, 놀이시간의 충분 정도가 가장 낮았고, 놀이에서의 재미가 가장 높았다. 놀이 참여 수준에 대해서 유아는 아버지가 어머니 보다 더 적극적으로 놀아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유아에게 부모와의 놀이는 즐겁고 재미있는 즐거운 활동(임정란, 2002)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정도보다 재미있고 만족스럽게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과 아버지와 놀이 시간이 어머니와의 놀이시간보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더 적극적으로 놀아준다고 인식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결과는 아버지가 짧은 놀이시간이라도 적극적으로 놀아주기 때문이거나 동적이고, 자녀가 즐기는 놀이를 함께 해주기 때문일 수 있다. Clarke-Stewatt(1989)과 Pruett(2000)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반복적이고 규칙적인데 비해, 아버지와 상호작용은 예측하기 어렵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놀이를 자녀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기관(예: 유아교육기관, 직장, 사회단체, 아버지 놀이학교)과 다양한 매체(예: 인터넷, 방송)를 통해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놀아주는 것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자녀 놀이 현황과 유아의 행복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아버지

의 경우 놀이 빈도 및 참여 수준이 높고, 평일, 토요일, 일요일 놀이시간이 길수록 자녀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도 높았다. 어머니의 경우 평일, 토요일, 일요일 놀이시간이 길수록 자녀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도 높았다. 아버지의 놀이 빈도와 참여 수준만 유아의 행복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버지와의 놀이가 자녀에게 더 인상적인 경험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는 놀아주는 빈도가 낮는데 높은 빈도로 놀아줄 경우, 그리고 더 활동적, 신체적(Clarke-Stewart, 1989; Pruett, 2000)으로 놀아줄 경우 자녀에게 더 기억에 남은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에 행복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평일과 주말 놀이시간과 행복감 간의 관계는 자녀와의 놀이 시간과 활동 수와 부모가 평정한 유아의 행복 간의 관계를 살펴본 박영애와 김리진(20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유아기의 부모-자녀 놀이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자체를 활성화하고(임정란, 2002), 애착의 질을 높이고(Hughes, 2003), 유아의 사회적 능력(고영실, 부정민, 2009; 구대희, 1998; Smilansky & Shefataya, 1990), 유능성 및 표현력(강정원, 1993; 원희영, 1997; 이숙재, 1984; 임정란, 2002), 정서 조절 능력(최혜순, 김찬숙, 2011), 정서 표현 능력(성영화, 2005)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긍정적 발달 결과는 유아의 자아 및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자녀의 행복감도 높아질 수 있다.

넷째,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놀이에 대한 유아의 인식도 유아의 행복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아버지와의 놀이에서는 참여 수준과 재미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놀이에서는 놀이시간의 충분함, 재미에 대한 인식, 만족 정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자녀가 느끼는 행복감도 높았다. 이런 결과를 통해 아버지와의 놀이에서는 시간보다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놀아주는지와 그런 놀이를 통해 얼마나 재미를 느끼는지가 중요하고, 어머니와의 놀이에서는 유아가 충분하다고 느낄만한 시간동안 놀아주는 것과 놀이에서 느끼는 재미와 만족감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유아가 인식하는 부모의 참여수준, 유아가 느끼는 재미와 만족도 같은 질적 요인이 유아의 행복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영석과 성영화(2006)도 부모와 자녀가 갖는 질적으로 만족스러운 놀이 시간은 놀이 시간의 부족을 상쇄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와 놀 때 지켜보거나 요청할 때만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넘어 자녀가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관계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정계숙 등, 2008)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놀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의 놀이에 대한 유아의 인식과 행복감간의 관계 양상과 어머니와의 놀이에 대한 유아의 인식과 행복감의 간의 관계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 패턴이 다르기 때문(윤상인, 2011; 임형희, 2008; Pruett, 2000)에 유아는 참여 수준, 충분 정도, 재미, 만족도를 다르게 느낄 수 있고 이것이 유아가 느끼는 행복감과 관련성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부모교육을 위한 시사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와의 놀이 시간이나 놀이 참여의 적극성은 중간 또는 중간보다 약간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가 자녀와 놀이하러 시간이나 참여할 때의 적극성이 더 높아지도록 자녀와의 놀이가 부모-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부모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모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놀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런 경향은 아버지와

의 놀이에 더 많이 나타났다.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 특성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놀이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한 연구(Clarke-Stewart, 1989; Pruett, 2000)를 고려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와 놀아 주는 것이 중요함을 부모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가 보고한 자녀와의 놀이현황과 자녀가 인식한 부모와의 놀이 모두 자녀의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원한다면 조기 학습보다는 양질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놀이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 결과에서 어머니의 놀이 빈도나 참여 수준은 자녀가 느끼는 행복과 관련이 없었던 점,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에 대한 인식과 자녀가 느끼는 행복 간의 관련성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 점은 추후 연구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 어린이의 보고를 기초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얼마나 적극적으로 놀이하는지는 부모와 자녀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직접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정원 (1993). 아버지의 놀이참여 형태와 유아 자신의 유능성 지각.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영실, 부정민 (2009). 부모의 놀이참여 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4**(1), 95-112.
- 구대회 (1998). 유아기 정서 행동 및 애착기능 발달의 유해환경요인 분석. **정서·행동장애연구**, **14**(2), 157-174.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김경은 (2011).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8**(4), 1-17.
- 김대우 (2017. 5. 8.). **육아휴직 사용하는 아빠 자녀 ‘양육역량’ 더 높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518000232>에서 2018년 8월 12일 인출
- 김명순, 조향린, 박영림, 신혜영 (2013). 부모와 유아 자녀의 놀이에 관한 연구: 부모의 놀이신념 및 놀이 참여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5**(1), 37-53.
- 김성숙 (2013). 유아가 인식하는 행복의 의미 탐색. **유아교육연구**, **33**(3), 377-400. doi:10.18023/kjece.2013.33.3.016
- 김은화 (2012). 영유아의 생활시간 및 부모-자녀 공유시간 실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주 (2015). 활동 맥락에 따른 어머니-걸음마기 자녀간 갈등의 특성과 영아의 기질 및 애착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혜 (2017).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1**(4), 283-300.
- 박순하 (2014). 어머니의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 김리진 (2011). 유아기 및 아동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관련 인식 기초조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2), 37-56.
- 박영애, 김리진 (2012).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의 놀이 현황 및 지원기대 분석.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5**(2), 283-300.
- 송은혜 (2008).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및 놀이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영화 (2005). 부모의 놀이참여도 및 일치도와 유아 감성지능과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수, 김은정, 유영의, 박현경, 백경순 (2011). **놀이와 유아교육**. 서울: 학지사.
- 심윤희 (2011). 부모의 놀이성 및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희영 (1997). 아버지의 놀이참여 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상인 (2011). 맞벌이 부모가 지각한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도와 만 2세 영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재 (1984). 유아의 상상 놀이와 제 변인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석, 성영화 (2006). 부모의 놀이유형별 놀이참여도 및 일치도와 유아 감성지능과의 관계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37-159.
- 이윤진, 김아름, 임준범 (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연구보고 2016-16).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현지, 정혜옥 (2016). 부모의 놀이신념, 놀이참여, 유아의 행복감 간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11**(4), 77-95. doi:10.16978/ecec.2016.11.4.004
- 임정란 (2002). 유아의 놀이유형별 아버지의 놀이참여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형희 (2008). 부모의 놀이유형별 놀이참여수준과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미경, 장재숙 (2009).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3), 103-118.
- 정계숙, 최은아, 강인설 (2008). 아동의 행복 상황 및 판단에 대한 조사 연구: 문화적 특수성 접근. **아동학회지**, **29**(6), 207-223.
- 채종욱, 이경화, 김소양, 김연진 (2010). **영유아를 위한 놀이지도**. 파주: 양서원.
- 채혜경, 박리나 (2016). 부모가 인식하는 유아 행복에 대한 이미지 탐색. **생태유아교육연구**, **15**(3), 107-126.
- 최혜순, 김찬숙 (2011). 부모의 놀이참여 수준 및 시간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 **열린유**

- 아교육연구, **16**(4), 117-133.
- 홍용희, 김혜진, 전우용 (2014). 유아들의 그림에 나타난 행복한 경험에 대한 인식. **육아지원연구**, **9**(4), 131-158. doi:10.16978/ecec.2014.9.4.006
- Bakeman, R., & Brownlee, J. R. (1980). The Strategic use of parallel play: A sequenti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51*(3), 873-878. doi:10.1111/j.1467-8624.1980.tb02625.x
- Carter, C. (2010). *Raising happiness: 10 simple steps for more joyful kids and happier parents*. New York: Ballantine Books.
- Clarke-Stewart, K. A. (1989). Single parent families: How bad for the children? *NEA Today*, *7*(6), 60-64.
- Damast, A. M., Tamis-LeMonda, C. S., & Bornstein, M. H. (1996). Mother-child play: Sequential interactions and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belief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7*(4), 1752-1766. doi:10.1111/j.1467-8624.1996.tb01825.x
- Diener, E., & Oishi, S. (2000). Money and happiness: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In E. Diener, & E.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 185-218). Cambridge, Mass: MIT Press.
- Ginsburg, K. R. (2007). The importance of play in promoting healthy child development and maintaining strong parent-child bonds. *Pediatrics*, *119*(1), 182-191. doi:10.1542/peds.2006-2697
- Hughes, F. (2003). Spontaneous play in the 21st century. In O. Saracho, & B. Spodek (Eds.),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Pla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pp. 21-39). Greenwich, Conn: Information Age Pub.
- Hughes, F. P. (2009). *Child, play, and development(4th ed.)*. Thousand Oaks, CA: Sage
- Ivens, J. (2007). The development of a happiness measure for schoolchild. *Educational Psychology in Practice*, *23*(3), 221-239. doi:10.1080/02667360701507301
- Labrell, F., & Simeoni, F. (1992). *ZPD revisited: Parental presence may be enough*.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Infant Studies, Miami.
- Lieberman, A. F. (1977). Preschooler's competence with peer: Relations with attachment and peer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48*(4), 1277-1287. doi:10.1111/j.1467-8624.1977.tb03932.x
-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6), 803-855. doi:10.1037/0033-2909.131.6.803
- Martin, C. L., Eisenbud, L., & Rose, H. (1995). Children's gender-based reasoning about toys. *Child Development*, *66*(5), 1453-1471. doi:10.2307/1131657
- Malchiodi, C. A. (2001). Understanding children's drawings, **아동미술심리이해**(김동연, 이재연, 홍은주 옮김). 서울: 학지사(원판 1998).
- Pruett, K. D. (2000). *Fatherneed: Why father care is as essential as mother care for your child*. New York: Free Press.
- Seligman, M. E. (2009).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

- tential for last fulfillment, **긍정심리학**(김인자 옮김). 경기: 물푸레(원판 2002).
- Smilansky, S., & Shefataya, L. (1990). *Facilitating play: A medium for promoting cognitive, socio-emotional and academic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Gaithersberg: Psychosocial and Educational Publications.
- Suh, E., Diener, E., & Fujita, F. (1996).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Only recent events matt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91-1102. doi:10.1037/0022-3514.70.5.1091
- Vailant, G. E. (2010). Aging well, **행복의 조건**(이덕남 옮김). 서울: 프런티어(원판 2002).

논문투고: 18.08.03

수정원고접수: 18.11.09

최종게재결정: 18.11.22